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인터넷 환경에서의 패스워드 안전성 강화

KISA,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 보급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패스워드의 안전도를 최상·상·중·하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KISA가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이 프로그램은 패스워드 길이와 문자구성, 영문사전 뿐만 아니라,기존 유사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한글사전을 이용해 입력된 패스워드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겐 더욱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시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패스워드 생성 팁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와 관련해 KISA 암호응용팀 전길수 팀장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들의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보급신청서와 소프트웨어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설치 매뉴얼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다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KISA 홈페이지 화면

KISA, 대학기관 대상 악성코드탐지 프로그램 배포

악성코드 유포 예방 기대

KISA가 전국대학IT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악성코드탐지 프로그램 'MC-Finder'를 대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웹 사이트에 숨겨진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도구 'MC-Finder'를 자체 개발한 KISA는 2005년부터 국내 웹 사이트들이 악성코드 유포지나 경유지로 악용되는 것을 탐지해 차단조치를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7년에는 국내 100,000여개 웹 사이트를 점검, 악성코드 유포지 또는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는 5,500여개 사이트를 탐지해 악성코드 유포를 차단한 바 있다.

KISA는 이번에 전국대학IT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MC-Finder를 배포함으로써 대학 내에서 운영 중인 학과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악성코드 유포지나 경유지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KISA, 제5회 '해킹방어대회' 개최

웹 2.0 등 최신 해킹 대응 및 방어능력 겨뤄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제5회 해킹방어대회 결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8일 양일간 진행된 예선에서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총 173팀 522명이 참가해 웹 2.0과 같은 최신 동향 기술 및 암호를 비롯해 프로그래밍, 리버싱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놓고 실력을 겨뤘다. 특히, 지난 13일 치러진 최종 결선에서는 예선 1위를 차지한 mayking팀을 비롯해, 12개팀 4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의 우승팀에게는 방송통신위원장상과 함께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상인 금상, 은상에서 각각 2개팀을 선정,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KISA에서 후원하는 대학 정보보호동아리 최상위 한 팀에게는 부상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DEFCON 컨퍼런스 및 동 행사에서 개최하는 해킹방어대회(Capture the Flag) 참가가 지원된다.

최종 우승자는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2008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성황리 종료

정보보호 UCC 및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시상

KISA와 국군기무사령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8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가 민·관·군 정보보호 전문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0일 개최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정보보호 현실조명과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초청강연, 패널토의, 세션별 주제발표, 단기강좌,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패널토의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 현실을 조명해 보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보호 UCC 경연대회는 기존 하향 주입식 형태의 정보보호 문화 조성 정책에서 탈피, 장병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병영내 정보보호 실천 생활화 유도는 물론,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종태 국군기무사령관은 개회사에서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국가 차원의 완벽한 정보보호 시스템은 국방분야를 포함해 공공분야, 민간분야의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만 구축 가능하다"며 국방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8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